

해남군 ‘햇빛소득마을’ 100곳 만든다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

11개면 40곳 참여 의향

100곳 목표 사업 홍보·상담 강화

해남군이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해남군은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100개소 발굴을 목표로 집중 홍보전에 나섰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정부 공모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업

홍보와 참여 안내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11개 면에서 총 40개소의 햇빛소득마을 참여 의향을 접수했다. 마을 단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의사를 확인한 단계로, 향후 부지 여건, 주민 동의,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마을협동조합 등 주민 조직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현금 배당, 마을 복지사업, 전기요금 절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환원하는 구조이다. 설치 대상은 ▲유류부지(잡종지·경사면) ▲영농형(전·담·과수원) ▲지붕형(창고·축사) ▲공공부지(폐교·도로변) 등 마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 규모는 300kW에서 최대 1MW 이내로 조성된다. 사업에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85% 이내 용자가 우선 지원되며, 마을 수요에 따라 주민참여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 보조사업 연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발전소 기획부터 시공·운영·행정 지원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의 사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현재 접수된 마을 이외 14개 읍면의 추가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총 100개소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별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맞춤형 안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미래 소득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전 읍면, 모든 마을로 참여를 확대해 해남형 햇빛소득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송어 뛰고! 희망 날고!’ 무안겨울송어축제

다음달 24~25일 해제면 일대
황금송어잡기 등 체험 행사

무안군이 다음 달 24~25일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에서 ‘송어 뛰고! 희망 날고!’를 주제로 ‘무안겨울송어축제’를 개최한다.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알리기 위한 축제는 곱창돌김, 감태, 황토고구마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홍보하고 황토갯벌랜드, 도리포 일출·일몰, 칠산대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송어를 비롯한 지역 농수산물(고구마, 김, 굴, 새우 등)을 활용한 구이존과 ‘황금송어를 잡아라’, 원데이클래스 ‘송어 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안송어는 무안 청정 갯벌을 먹은 까닭에 ‘별



무안겨울송어축제 포스터.

통해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즐기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산무안군수는 “축제를 통해 무안 겨울 송어의 참맛을 즐기고,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의회 기후변화·고령화 대응 스마트팜 활성화 추진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신안군의회가 미래 농업의 해답으로 불리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5개월간 추진한 ‘신안군 스마트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를 갖고, 신안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신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대표의원 최춘욱 등 4인)와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담았다. 주요 연구 활동으로는 ▲비전 설정 ▲청년농 육성 ▲디지털 격차 해소 ▲신안 특화 모델 등 세분화하여 추진했다. 최춘욱 신안군의회 의원은 “스마트팜은 신안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을 불러 모을 핵심 동력”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kwangju.co.kr



영암군 ‘소아청소년과 운영’ 7억7000만원 모금

고향사랑 지정 기부 162% 초과

영암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2026년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모금’이 전국적 관심을 받으며 목표액을 162%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지정기부의 목표액은 4억 79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금에 들어갔는데, 이달 18일 기준 모금액은 7억 78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영암군 소아청소년과는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운영돼 왔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영암 소아·청소년이 진료를 받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 왔다. 영암군은 지정기부 운영비를 내년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2027년 운영비 모금에도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새로 시작한 2건의 고향사랑 지정기부도 인기다. 시골 어르신 식품 구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네방네 기찬장터 운영비’는 마을까지 식료품과

현금자동출납기를 실은 차량이 찾아가 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을 위한 모금이다. 3000만원을 목표로 하는 이 지정기부는 개시 15일 만에 2000만원을 넘길 정도로 시선을 끌고 있다. 마을까지 세탁차량이 찾아가는 ‘기찬이동빨래방 운영비’ 모금은 1억 2000만 원이 목표로, 현재 2000만 원을 모았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두 사업 모두 전국 고향사랑기부자들의 관심을 끌며 조기 마감에 예상된다”라며 “기부자들의 마음에 쏙 드는 지정기부와 사업을 진행해 소중하게 쓰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녹색자금 공모’ 선정…15억원 확보

동외호수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진도군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진도군 동외호수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동외호수공원은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찾는 진도군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여가 활동의 중심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산책로의 경사도가 높아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산책로 평균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하고, 보행 취약자를 위한 교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보행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진도의 자연과 특성을 반영한 생태, 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해 공원의 품격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동외호수공원을 누구나 제약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대표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군민의 일상에 여유와 쉼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문화예술회관 내년 1월부터 휴관

10억원 투입 리모델링 공사
전시관 3개월·공연관 6개월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목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시관은 2026년 1월2일부터 3개월, 공연관은 6개월간 휴관에 들어간다. 이번 리모델링은 개관 이후 노후화된 주요 시설과 장비를 정비하고, 전시·공연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 건의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액 도비로 지원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전기설비 교체 ▲전시관 옥상 방수 공사 ▲전시·공연관 내부 개보수 ▲공연관 무대설비 교체 등으로, 이용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연관은 무대설비 교체 완료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향후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휴관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다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다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